

## 블랑팡이 표현하는 우아함

블랑D321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심플하고 우아한 매력의 여성용 타임피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레드 골드 소재의 새로운 여성용 워치는 브랜드의 상징적인 컴플리케이션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빌레레(Villeret) 컬렉션의 디자인적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블랑팡은 2017 바젤월드를 통해 빌레레 컬렉션의 가장 여성스러운 특징들이 담긴 데이트 문페이스(Date Moon Phase) 워치를 공개한다. 이 레드 골드 모델의 다이얼은 골드 소재의 핸즈와 어우러지며, 날짜 인디케이터와 사파이어 소재의 문페이스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페이스 기능은 1980년대 초반 블랑팡에 의해 재조명 되기 전까지 거의 사라졌던 컴플리케이션 기능 중 하나이다. 이후, 문페이스는 블랑팡의 가장 상징적인 컴플리케이션 기능이 되었다. 시계의 다이얼을 통해 달의 주기를 보여주는 문페이스 기능을 다시금 소개함으로써 워치메이킹과 천문학의 역사적 유대를 환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달의 얼굴은 다이얼의 문페이스 창을 통해 그대로 보여진다. 음력은 29.5일의 주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페이스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59개의 톱니를 가진 휠이 사용된다. 달의 디자인은 원형의 디스크 위의 서로 상반되는 위치에 중복되게 자리하며 이 디스크는 앞서 말한 휠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다. 달에는 여성의 얼굴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얼굴에서 재미있는 점은 미소 짓는 여성의 입가에 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18세기 유럽 궁정의 귀족 여인들이 구혼자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의 형태로 널리 사용되던 것이며, 그 메시지의 내용은 점이 얼굴의 어디에 찍혀 있느냐에 따라 달라졌다고 한다.

새로운 빌레레 데이트 문페이스(Villeret Date Moon Phase)의 케이스 지름은 29.20mm이며, 베젤은 48개의 풀컷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장식되었다. 이 타임피스는 셀프와인딩 칼리버 913QL로 구동된다. 이 칼리버에는 관성을 최소화하는 레귤레이션 스크류와 실리콘 스파이럴이 사용된 글루시듀어 밸런스(glucydur balance)가 사용되었다. 시계 산업에 큰 혁신을 가져온 것으로 소개되는 실리콘 스파이럴은 가볍고 충격에 강하며, 자성

의 영향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소재의 장점들은 밸런스 스프링이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무브먼트의 오차를 현격히 줄이고 시간 측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모서리를 폴리싱하는 베벨링(beveling)과 굽은 줄무늬를 새기는 코트 드 제네바(Cote de Genève) 등의 다양한 피니싱 기법들이 사용된 레드 골드 소재의 와인딩 로터는 투명한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감상할 수 있어 섬세함과 세련됨을 표현해내는 블랑팡의 재치 넘치는 기술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